

고전시가 (‘김춘택’, 「별사미인곡」 / ‘이정보’, 「님으람 회양 금성 오리나무가 되고~」 / 박지원, 「백자증정부 인박씨묘지명」)

(가)

① 이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씀 그만하오
 말씀올 드러하니 설운 줄 다 모름새
 ② 인연인들 한가지며 이별인들 갈음손가
 광한전 백옥경의 님을 뵈셔 즐기더니
 아양을 하였거니 재양인들 업슬손가
해 다 저문 날의 가는 줄 설워 마소
 엇더타 이 내 몸이 건줄 테 전혀 업네
 광한전 어디인가 백옥경 내 알던가
 원앙침 비취금에 뵈셔 본 적 전혀 업네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으로 님 사랑할가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歌舞)야 더 이룰가
 엇언지 님 향(向)한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생기시고 성현이 가르쳐서
 정학^{*}이 앞에 잇고 부월^{*}이 뒤에 이셔
 일백 번 죽고 죽어 뼈가 가루가 된 후라도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할손가
 나도 일을 가져 님의 업는 것만 얻어
 부용화 옷을 짓고 목난으로 주머니 삼아
 하늘께 맹세하여 님 섬기라 원이러니
 조를 시기했나 귀신이 뤼방했나
 내 팔자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할가
 내 몸의 지은 죄를 모르니 그 더 죄라
 나도 모르거니 님이 어이 알겠는가
 (중략)
 뵈셔서 이리하기 각시님 같던들
 설움이 이러하며 생각인들 이러할가
 차생의 이러커튼 후생을 어이 알고
 차라리 식여져 구름이나 되어서
 상왕 오색^{*}이 님 계신 데 덮었으면
 그도 마소 하면 바람이나 되어서
 하일 청운^{*}의 님 계신 데 붙어서
 그도 마소 하면 일분명월 되어서
 영영 반야에 두렛이 비최고져

- 김춘택, 「별사미인곡」 -

- 정학: 죄인을 살아 죽이는 큰 순.
- 부월: 작은 도끼와 큰 도끼.
- 상왕 오색: 다섯 가지의 길한 빛.
- 하일 청운: 여름날의 맑고 시원한 응달.

[A]

[고전시가 유형]

1. 유교
 (충 & 지조·절개)

[시적 상황]

1. 임과 이별함
2. 내 탓을 하고 있음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

1. 임 향한 마음 변하지 X
2. 임을 섬기고 싶음
3. 죽어서라도 임 곁으로 가고 싶음

(나)

남으람* 회양(淮陽) 금성(金城)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삼사
월 취녕쿨이 되야

그 나무에 그 취이 남거미 나비 감돏 이리로 촌촌 저리로
촌촌 외오 풀러 올히 감아 열거져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
도 빈틈 업시 찬찬 굽의 나게 휘휘 감겨 주야 장상(晝夜長常)
뒤트러져 감겨 잇서

동(冬)섯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맛즌들 ㉠ 떨어질 줄 이
시라

- 이정보 -

* 남으람: 임은.

[고전시가 유형]

I. 임에 대한 사랑
(유교-충/지조-절개)

[시적 상황]

1. 임이 나무가 되고 화자는
취녕쿨이 된 상황을 가정함
2. 나무와 취이 서로 껴안듯이
휘휘 감겨서 얽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

1. 얽힌 이 관계 어떤 경우에
도 떨어지지 않겠다.

(다)

돌아가신 큰누님의 이름은 아무개로서 만남 박씨이다. 그 동생 지원 중미가 묘지명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누님은 나이 열여섯에 덕수 이씨 택모 백규에게 시집가서 딸 하나 아들 둘을 두었다. 신묘년 구월 초하루에 돌아가 사십삼 세를 살았다. 남편의 선산이 아곡이라 그곳의 경좌* 방향 자리에 장사를 지낸 예정이었다.

그런데 백규가 어린 아내를 잃은 데다가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는지라, 아예 어린 자식들과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술과 그릇가지, 옷상자와 짐 보따리를 챙겨서 배를 타고 그 골짜기로 들어가 버렸다. 상여와 함께 일제히 떠나는 새벽, 나는 두모포에서 배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을 하고서 돌아섰다.

아아! 누님이 시집가는 날 새벽에 몸단장하던 모습이 흡사 어제 일만 같구나. ① 나는 그때 겨우 여덟 살이라, 벌렁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새신랑이 말을 더듬으며 짐칸 뼈는 말투를 흉내 냈다. 누님은 부끄러워하다가 그만 빛을 떨어뜨려 내 이마를 때렸다. 나는 화가 나서 울음을 터트리고는 분가루에 먹을 뒤섞고 거울에 침을 뱉어 문질러 댔다. 그러자 누님은 옥으로 만든 오리와 금으로 만든 벌 노리개를 꺼내어 주면서 울음을 그치라고 나를 달랬다. 지금으로부터 스물여덟 해 전 일이다.

강가에 말을 세우고 저 멀리 바라보니 붉은 명정*이 바람에 펄럭이고 돛대는 비스듬히 미끄러지는데, 강굽이에 이르러 나무를 돈 뒤에는 모습을 감추어 더는 보이지 않았다. 강가 멀리 앉은 산은 시집가던 날 누님의 쪽 지은 머리처럼 검푸르고, 강물 빛은 그날의 거울처럼 보이며,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처럼 보였다. 빛을 떨어뜨리던 그날의 일을 눈물 속에서 생각하니 유독 어릴 적 일만이 또렷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때는 또 그렇게도 즐거운 일이 많았고, 세월은 길게만 느껴졌다.

그사이에는 늘 이별과 환난에 시달려야 했고 빈궁에 시름겨워했다. 그 일들이 꿈속인 양 황홀하게 스쳐 지나간다. ② 형제로 지낸 날들은 어쩌도 그렇게 짧았던 말인가?

떠나는 이 간곡하게 뒷기약을 남기기에
보내는 이 도리어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조각배는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보내는 이 쓸쓸히 강 길 따라 돌아서네.
- 박지원,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 -

}
[B]
}

* 경좌: 서남쪽을 등진 방향.
* 명정: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

[고전시가 유형]

III. 기타
(죽은 이에 대한 슬픔)

[시적 상황]

- 1. 누나가 죽음
- 2. 누나의 남편은 너무 가난하여 누나의 시체와 가족, 종을 데리고 짐 챙겨서 배타고 떠남
- 3. 누나가 시집가던 날을 회상함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

- 1. 상황에 대해 통곡함(=슬픔)
- 2. 과거를 되돌아보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렀다고 생각

22번 문항.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서는 과거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 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과거의 인연을 끊으려는 장면이 나오는가?

- ✓ 시 마지막 구절 '구름', '바람', '달'이 돼서라도 '님'계신 곳에 가고 싶다. → **마지막까지** 인연 끊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 ∴ 선지 판단 : 부적절한 선지

② (나)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가?

-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근거가 지문에 나오지 않았으면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근거 X = 적절하지 않다.
- ∴ 선지 판단 : 부적절한 선지

③ (다)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드러나는가?

- ✓ 허무하다 = 의미 없다. or 가치가 없다.
- ✓ 슬퍼하는 모습은 나오나 '허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근거가 지문에 나오지 않았으면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근거 X = 적절하지 않다.
- ∴ 선지 판단 : 부적절한 선지

④ (가), (다)에서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특정 대상을 떠올리는가?

- ✓ (가) '님'에 대해 생각한다.
- ✓ (다) '누님'에 대해 생각한다.

2. 대상에 대해 그리워하는가?

- ✓ (가) '님'을 생각하며 '설움'(중략 이후 2번째 행)을 느낀다. & '구름', '바람', '달'이 돼서라도 '님'계신 곳에 가고 싶다. → '님'을 생각하며 슬프고 '님' 계신 곳에 가고 싶은 심정을 그리운 감정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없음.
- ✓ (다) '누님'과의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가 꿈인 것 같았고 돌이켜 보면 서로 같이 보낸 시기가 짧았다고 생각한다. & '누나'가 떠남에 눈물을 흘림. → '누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생이 누나와 함께 보낸 시간이 꿈같고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리운 감정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없음.
-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미래에 대한 불안이 드러나는가?

- ✓ (가) '차생이 이렇거든 후생을 어이할가' = 지금도 이렇게 안 좋은데 미래는 어떻겠느냐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걱정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 ✓ (다)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 미래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설의적 표현에 해당한다. →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으나 불안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애매하다.
 - ✓ (나) '동섯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맛즌들 떨어질 줄 이시랴' → 어떠한 고난을 마주해도 '님'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선지 판단 : 부적절한 선지

23번 문항.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화자가 상대방을 부르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화자는 상대방을 부르고 있는가?

✓ ‘이보소 저 각시님’은 상대방을 부르는 것이다.

2. 부르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가?

✓ ‘설운 말씀 그만하오’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서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드러낸다.

✓ 해당 발화는 사건에 대한 입장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고 봐도 논리적으로 문제없음.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② ㉡ : 화자는 인연이나 이별의 상황이 각자 다르다고 여기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화자는 인연이나 이별의 상황이 각자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 ‘인연인들 한가지며 이별인들 같을손가’ = 인연인들 한가지가 아니며, 이별인들 같지 않다.

✓ 인연이 1가지로 동일하지 않고, 이별이 같지 않다는 말은 인연이나 이별의 상황이 각자 다르다는 말과 동일하다.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③ ㉢ : 화자가 임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임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 ‘떨어질 줄 이시라’ =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 ‘임’ = 나무 화자 = 칙녕굴 → 식물에게 ‘바람비’와 ‘눈서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

✓ ‘바람비’와 ‘눈서리’를 아무리 맞아도 서로 엉켜있음을 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겠다. → 어떤 위기에도 ‘임’ 곁을 떠나지 않겠다.

✓ 곁을 떠나지 않겠다 = 지조와 절개 =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임.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④ ㉣ : 글쓴이가 자신의 나이와 행위를 통해 과거의 철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자신의 나이와 행위를 제시하는가?

✓ ‘나는 그때 겨우 여덟 살’ = 자신의 나이(8살)

✓ ‘별령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새신랑이 말을 더듬으며 점잔 빼는 말투를 흉내’ = 행위(드러눕고, 발버둥치고, 말투 흉내)

2. 나이와 행위에서 과거의 철없는 모습이 드러나는가?

✓ 그 행동에 누님이 부끄러워하고 ‘나’를 때림 = ‘나’의 행동은 누나를 화나게 만든 행동

✓ 가만있는 사람을 괜히 화나게 만든 행동은 일반적으로 철없는 행동이라고 본다.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⑤ ㉠ : 글쓴이가 과거 사건을 요약하며 좌절감을 완화하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과거 사건이 요약되어 있는가?

✓ '형제로 지낸 날들은 어찌도 그렇게 짧았'다. → '사건'에 대한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과거 사건을 요약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 우선 판단을 유보하자.

2. 요약된 사건에서 좌절감이 완화되고 있는가?

✓ '어찌도 그렇게 짧았던 말인가?' = 너무나도 짧았다. = 아쉽다. ≠ 좌절감을 완화
∴ 선지 판단 : 부적절한 선지

※ [1등급을 가르는 KEY Point]

Q. 문제를 풀다가 정답인 것 같은데 확실히 설명하기 어려운거 같은 애매한 선지가 나오면 어떻게 푸나요?

A. 애매한 선지는 우선 △표시를 하고 다른 선지부터 확인하세요! 애매한 선지가 존재하면 해당 문제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는 선지를 명확히 설명이 되는 정답이 존재하거나, 나머지 4개의 선지가 명확하게 오답이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 따라서 애매한 선지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표시 후 넘어가고 명확히 설명이 되는 선지들을 먼저 판단하세요.(확실한 정답 or 확실한 오답)

※ 만약 문제를 풀 때 명확히 설명이 되지 않는 선지가 2개 이상이라면, 애매한 이유는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출제했거나, 아니면 아직 근거 기반 정답 도출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 [1등급을 가르는 KEY Point]

Q. 애매한 선지가 2개 이상인 이유가 문제 난이도 때문인지, 근거를 기반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마더텅, 마달과 같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애매한 선지가 2개 이상 나왔던 문제만을 모아서 끊임 없이 오답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합니다. 그렇게 오답을 하면서 부족한 근거 기반 선지 판단 능력을 끊임없이 길러야합니다. 그렇게 연습하여 근거 기반 선지 판단 능력이 늘어난다면 정답률 40%이상의 문제에서 틀리는 일은 매우 드물어질 것입니다. 만약 정답률 40%이상의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드물어진다면, 그 이후 자신이 못 푸는 문제는 고난이도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 고난이도 문제일 경우,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이니 당황하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 정답률 40%가 기준인 이유
: 50%는 2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확률입니다. 즉 정답률이 50%인 문제는 2개의 선지가 헛갈릴 때, 찍었을 확률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50%보다 살짝 낮은 수치인 40%대의 정답률의 문제는 2개의 선지 중 찍는 것이 아닌 '근거 기반 선지 판단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석했습니다. 더불어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 40% 미만의 문제는 난이도가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40%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입니다.)

24번 문항. [A]에 나타난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이 과거에 임과 만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임과 만나게 된 이유가 나오는가?

- ✓ 만나게 된 이유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근거가 지문에 나오지 않았으면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근거 X = 적절하지 않다.
- ∴ 선지 판단 : 부적절한 선지

② 자신이 아무런 죄 없이 참소를 당했다고 임에게 호소하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화자는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 ✓ '죄를 모르니 그 더 죄라 / '니도 모르거니 남이 어이 알겠는가' → 화자는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인식하고 있을 뿐,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유를 모르지만 죄가 있다고는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 ∴ 선지 판단 : 부적절한 선지

③ 자신이 정성을 담아 만든 물건을 임에게 전달한 후 안도하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자신이 정성을 담아 만든 물건이 있는가?

- ✓ '부용화 옷을 짓고 목난으로 주머니 삼아 / 하늘께 맹세하여 님 섬기랴 원이러니' → '옷'을 짓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성을 담아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애매하다.
- 2. 임에게 전달했는가?
 - ✓ 임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근거가 지문에 나오지 않았으면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근거 X = 적절하지 않다.
 - ∴ 선지 판단 : 부적절한 선지

④ 자신의 행동과 재주가 임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자신의 행동과 재주가 나오는가?

- ✓ '내 얼굴 이 거동이' /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이를가' → '거동'(=행동) & '길쌈'과 '가무'(=재주)

2. 임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한탄하는가?

- ✓ '무엇으로 님 사랑할가' = 뭘보고 님이 사랑하겠는가 =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
- ✓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이를가' → '가무'도 '길쌈'처럼 못한다. & '무엇으로 님 사랑할가' 다음에 바로 연이어 나온 행. 따라서 **문맥적 관계상** '재주'도 '임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와 연관지을 수 있다.
-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⑤ 자신의 풍류 의식과 성현의 가르침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풍류 의식이 드러나는가?

- ✓ **풍류 의식 = 도교 = 자연친화** →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근거가 지문에 나오지 않았으면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근거 X = 적절하지 않다.
- ∴ 선지 판단 : 부적절한 선지

25번 문항.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구름'은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화자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1등급의 머릿속]

1.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것인가?

✓ <보기>에 따르면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하였다.

2. 화자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가?

✓ <보기>에 따르면 (가)의 변신은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구현된다고 하였다.

3. 구름을 되고 싶은 존재로 볼 수 있는가?

✓ '구름이나 되어서' → 되려는 존재. & 구름이 되겠다는 것은 상상력 발휘한 것으로 보는 것에 논리적 문제없음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② (나)의 '삼사월 침녕쿨'은 화자가 상상력을 발휘해 몸을 바꾸기를 바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1등급의 머릿속]

1. 몸을 바꾸기를 바라는 존재로 볼 수 있는가?

✓ <보기>에 따르면 (나)의 변신은 '다른 존재로 몸을 바꾸는' 것으로 구현된다고 하였다.

2.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나는 삼사월 침녕쿨이 되야' → 내가 되겠다는 존재. & <보기>에 따르면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 침녕쿨이 되겠다는 것은 상상력 발휘한 것으로 보는 것에 논리적 문제없음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③ (나)의 '그 나무에 그 침이 납거미 나비 감돗'은 임이 자신과 함께 변신하여 서로의 관계가 굳건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등급의 머릿속]

1. 임이 자신과 함께 변신한 것인가?

✓ '님으람 회양 금성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삼사월 침녕쿨이 되야' → '임'은 '오리나무' & '나'는 '침녕쿨'이 되겠다.

2. 화자의 소망이 서로의 관계가 굳건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인가?

✓ '납거미 나비 감돗' & '흔흔 외오 풀러 올히 감아' & '떨어질 줄 이시랴' → '임'(나무)과 '나'(침)과 서로 엉키어 감겨 떨어지지 않겠다. → 둘이 엉킨 것이 관계를 비유했다고 보면, 관계가 굳건하게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에 문제없음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④ (가)의 '해 다 저문 날'과 (나)의 '동섯달'은 모두 화자가 임과 헤어지는 시간으로, 화자가 변신을 바라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군.

[1등급의 머릿속]

1. 화자가 임과 헤어지는 시간인가?

✓ (가)의 '해 다 저문 날' → '가는 줄 설워 마소' = 떠나는 것을 서러워 말라는 말 → 시적 상황이 '남'과 이별한 상황이므로 문맥상 떠나는 것을 헤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에 있어 문맥적 문제없음 → 헤어지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나)의 '동섯달' → '동섯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맞즌들 떨어질 줄 이시랴' = '동섯달'에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떨어지지 않겠다. → 헤어지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 선지 판단 : 부적절한 선지

⑤ (가)의 '바람'은 화자 자신의 변신을, (나)의 '오리나무'는 임의 변신을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등급의 머릿속]

1. '바람'은 화자 자신의 변신을 바라는 심정인가?

✓ '바람이나 되어서' → '임' 곁에 가고자 '바람'이라도 되겠다는 화자의 말 = 화자 자신의 변신을 바란다고 보는 것에 있어 논리적 문제 없음

2. '오리나무'는 임의 변신을 바라는 화자의 심정인가?

✓ '님으람 회양 금성 오리나무가 되고' → '임'이 '오리나무'가 된다는 가정법

✓ <보기>에 따르면 '상대방과 함께 변신하기를 바라는 양상'이 있다고 하였음 → ③선지에서 해당 설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해당 질문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26번 문항. (다)의 맥락을 고려하여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글쓴이는 [B]에서 누님과 약속을 어긴 이유를 밝히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누님과 약속이 나오는가?

✓ '뒷기약' → (다)의 내용에서 약속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근거가 지문에 나오지 않았으면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근거 X = 적절하지 않다.

∴ 선지 판단 : 부적절한 선지

② 글쓴이가 [B]에서 제시한 시적 배경은 새벽녘 강가로 볼 수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시적 배경이 새벽녘 강가인가?

✓ 시에서 배경 = '배'를 떠나보내는 시공간

→ (다)에서 배가 떠나는 시간 = 새벽 + [B]에서 공간 = '강 길' = 강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③ 글쓴이는 [B]를 통해 사별의 정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사별의 정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가?

✓ [B] '보내는 이' →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 눈물 흘린다.

✓ (다)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을 하고서' = 통곡하다.

✓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행위는 누님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반응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④ 글쓴이는 [B]에서 상여를 실은 조각배가 떠난 후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상여를 실은 조각배가 떠난 후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을 제시되는가?

✓ '상여와 함께 일제히 떠나는 새벽 ~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을 하고서 돌아섰다' → 배웅하고 통곡한 뒤 돌아섰다고 했다.

✓ [B]에 쓰이는 '돌아서네'는 (다)의 '돌아섰다'와 동일한 행동이다. → 떠난 후 돌아서는 모습이라고 보는 것에 있어 논리적 문제없음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⑤ 글쓴이는 [B]에서 스스로 묻는 방식으로 더 이상 누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1등급의 머릿속]

1. 스스로 묻는 방식이 나타나는가?

✓ '조각배는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 청자가 앞에 없으므로 독백 & 의문문 = 스스로 묻는 방식

2. 해당 문장이 더 이상 누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가?

✓ '조각배는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 [직역] 조각배(누나)는 이제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 누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러나므로 해당 선지는 논리적 문제없음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27번 문항.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이해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누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 가문에 대한 자랑과 누님에 대한 애뜻한 정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1등급의 머릿속]

1. 누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가?

✓ '큰 누님의 이름은 아무개로서 반남 박씨이다.' → '아무개'가 물론 이름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무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해당 문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부분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존재한다. But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므로 △처리!

2. 가문에 대한 자랑과 누님에 대한 애뜻한 정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가?

✓ (다)에서 '반남 박씨'는 어떤 가문인지를 알려주는 정보일 뿐, 자랑을 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근거가 지문에 나오지 않았으면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근거 X = 적절하지 않다.

∴ 선지 판단 : 부적절한 선지

㉡ 누님의 남편이 생계가 어려워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1등급의 머릿속]

1. 누님의 남편이 생계가 어려워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가?

✓ 2문단 내용 : 백규(남편)가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는지라.' & '어린 자식들과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배를 타고' → 남편이 생계가 어려워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는 내용이다.

2. 상투적인 서술상의 관행에서 탈피했는가?

✓ <보기>에 따르면 남편이 생계가 어려워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서술상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 누님이 화가 난 남동생을 달래기 위해 노리개를 꺼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1등급의 머릿속]

1. 누님이 화가 난 남동생을 달래기 위해 노리개를 꺼낸 일화를 소개했는가?

✓ [3문단] 누나에게 이마를 맞은 '나'는 '울음'을 터트리며 성질을 부린다. → '누님'은 '금으로 만든 별 노리개를 꺼내어 주면서 울음을 그치라고 나를 달랬다' → 화가 난 남동생(='나')을 달랬다고 노리개를 꺼냈다.

2. 상투적인 서술상의 관행에서 탈피했는가?

✓ <보기>에 따르면 일화를 소개하는 것은 서술상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 시집가던 날의 누님의 모습을 글쓴이가 회상하며 누님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을 표현했습니다.

[1등급의 머릿속]

1. 시집가던 날의 누님과 쌓은 개인적인 추억을 글쓴이가 회상하였는가?

✓ [4문단] '시집가던 날 누님의 쪽 지은 머리' → 시집가던 날의 누님의 모습에 해당한다.

✓ [4문단] '어릴 적 일만이 또렷또렷하게 떠오른다.' → 개인적인 추억 회상에 해당한다.

2. 상투적인 서술상의 관행에서 탈피했는가?

✓ <보기>에 따르면 회상하며 개인적인 추억을 표현하는 것은 서술상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지 판단 : 적절한 선지

※ [1등급을 가르는 KEY Point]

만약 애매한 것이 2개라면? → 근거를 기반으로 논리적 판단을 하는 연습을 하자!

더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마주하는 문학 문제의 특징은 두 선지 중에서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개 중 한 개를 선택하면 맞든 틀리든 대체로 두 선지 가운데 하나가 정답인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 경우의 선지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성격을 보입니다.

A선지는 ①아무리 봐도 맞는 말 같은데, ②사용하는 근거가 지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B선지는 ①아무리 봐도 A보다 끌리는 선지는 아닌데, ②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지문에 존재하고, ③선지의 논리에 오류가 없다.

→ 이런 상황이면 **A**는 매력적이지만 적절하지 않은 선지 / **B**는 매력이 없지만 적절한 선지